

원전 갑상선암 피해 하소연...“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영광 53명·고창 73명 등 환자 618명...평생 약 먹으며 고통 한수원 상대 공동소송 중...피해자들 국회서 증언대회 열고 대책 촉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원전 주변지역에 살다 암에 걸려 힘들게 치료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보상은 커녕, 소송을 위해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암발생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피폭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는 주제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의 건강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암 치료를 위한 고통을 견뎌내며 피해 보상을 위해 원전 대기업에 맞서 직접 소송 서류를 챙기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빛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영광 53명·고창주민 73명 등 126명을 비롯, 월성(94명)·고리(251명)·울진(147명) 등 국내 4개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 618명이 대상이다. 618명 주민 모두 갑상선암 환자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확

산 등을 우려, 3명의 주민이 참석해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를 증언했다. 이들은 암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뒤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된다.

이들은 모두 원전들로부터 평균 7.4km의 거리의 주거지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2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 수만 2882명에 이른다.

소송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배출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를 다룬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진섭씨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뒤집혔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이씨 가족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거주했는데 부인의 경우 발전소 근처에서 20년 이상 지냈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소송을 냈다. 이씨는 대장암, 아들은 선천성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함께 법정 싸움을 나섰다가 최종 패소 판결

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광 주민들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중인 주민들 표정도 밝지 않다.

하지만 공동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진섭씨는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 “2010년 같이 살고 있는 장모님도 위암에 걸렸고, 2011년 내가 직장암 걸렸지만 그때까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원전 가짜부품사건과 아내의 갑상선 암까지 발견되니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원전에 의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면서 “항상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는 원전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에 사는 황병희씨도 “34년을 원전 근처에서 살면서 원전 때문에 얻은 건 갑상선암 수술 뿐”이라며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생을 약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증언대회 이후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변영철 변호사는 “한수원의 주장대로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므로 방사성물질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백도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수원 측은 100mSv 이하의 선량을 저선량이라 부르며, 마치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증언대회에서 참석 주민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핵발전소주변지역대책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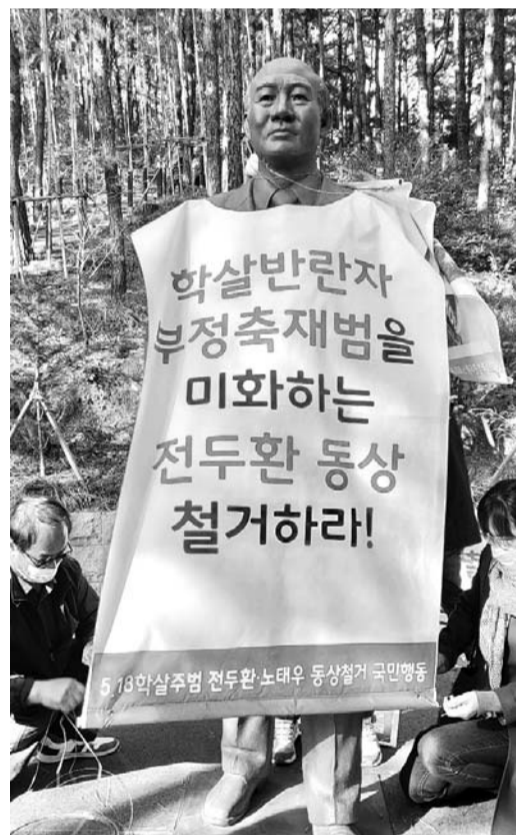
그 이하의 선량에서는 그 유해성이 밝혀진 적이 없는 안전한 선량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밝혀진 적이 없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르다”면서 “최근에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서 인체에 건강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피해 소송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법체계상 재판부가 피해사실의 입증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묻

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묻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종호 영광·고창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병, 미나타마타 병 등도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피해가 인정 됐다”면서 “한빛원전에서는 기체와 액체형태로 미량의 방사능이 날마다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동상 철거하라” 3일 오후 충북 청남대에서 5·18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술 드셨죠? 신고 안할테니 1000만원 주시죠”

상습 고의사고 택시기사 구속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 안할테니 1000만원 주시죠.”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6월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신호 위반을 한 B씨 차량을 발견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에도 B씨 차량이 그대로 달아나자 A씨는 추격해 차량을 세우고 B씨를 내리게 했다. 내리는 차 안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A씨는 바로 “당신 음주 뺑소니야.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도 있을텐데, 1000만원에 해결합시다”는 취지의 ‘협박’ 성 말을 했다. B씨는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1000만원을 건넸다.

몇달 뒤 전화를 받고 서부경찰을 찾은 B씨는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범행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공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6

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7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술을 마신 상태라 처벌받을게 두려워 1000만원을 건넸다”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더니 신고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임선욱 광주서부경찰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택시 운전사가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에 공갈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빠 보험사기특별법상 특수상해 혐의에다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흥 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전국서 가장 취약

고흥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억 가천대 교수 연구팀이 3일 전국 10대 지역 50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중 고흥군이 33.8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최근 5년 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10개 지역 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형태와 통행량 등(환경적 측면) ▲

횡단보도 신호등·과속단속CCTV·과속방지턱 설치 유무 등(시설적 측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안전조례 제정 등(제도·단속적 측면) ▲녹색여름나·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역사회연대보호활동 등(운영관리적 측면)을 분석해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안전지수를 산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고흥과 광산군이 포함됐다. 고흥군의 경우 나세 수준의 안전 지수로 망신을 샀다. 녹동초의 경우 통학로 안전지수가 100점 만점에

서 12점을 받는 데 그쳤다. 수치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초등학교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고흥에서는 녹동초 외에도 동강초(24.5점), 봉래초(26점)가 전국 50개 초등학교의 평균 안전지수인 54.71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65.2점으로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의 경우 대만초(54점)를 제외한 신창초(68점), 금구초(66점), 선창초(66.5점), 봉산초(70점)가 전국 평균 이상의 안전지수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청년들 미성년 11명 포함 30명 적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회사에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고 동네 친구나 선·후배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명은 미성년자였으며 대부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키장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